

교무금 납입세대 (2021년 04월 10일 ~ 2021년 04월 16일)								
반	세대주	납입월	반	세대주	납입월	반	세대주	납입월
10	남경훈	4	4	정만일(빛딸리스)	4	2	이지나(스텔라)	4
6	김남선(첼리나)	4	10	이종열(알렉산텔)	4	7	손성태(가브리엘)	4
10	조성호(다니엘)	4	5	강만영(마르첼리노)	4~5	7	정미지(가브리엘라)	1
10	양말순(아가다)	3~4	13	박정숙(데글라)	4			
교구사업모금 (2021년 04월 17일 ~ 2021년 04월 23일)								
10	조성호(다니엘)	4						

지난주 재정현황 (04월 11일 ~ 04월 17일)		
교무금	₩	1,862,000
주일언금	₩	779,000
교구사업모금	₩	293,000
사순 특별언금	₩	1,447,000
기타우원회비	₩	48,000
성소우원금	₩	24,000
군중우원금	₩	14,000
잔액	₩	10,143,196

지 출	
교구분담금 외 04건	
₩ 1,826,000	
미사 참례자 수	
토요미사	52명
교중	98명
개척	16명
총인원	166명

광고	
우리농이야기 (전화 070-8853-7148) <우리농 상품권을 아직 소지하신 분들은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콩국가루(300g) 8,500원 * 감자전분(200g) 3,200원 * 울금가루(100g) 11,000원	

제1191호 2021년 04월 25일	주보영인 생 베드로
산오주보 마산교구 산호성당 / 마산합포구 산호남12길 16 (산호동)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부활 시기	홈페이지 : http://san.cathms.kr
2021년 <신앙선조의 성소이야기(김대건, 최양업)> 김대건 신부의 집안에 신앙이 뿌리내린 것은 증조부 김진후 때부터다. 김진후와 숙조부 김한현이 순교했을 뿐 아니라 부친 김제준과 김 신부에 이르기까지 4대가 하느님을 위해 순교했다.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은 김제준은 모방 신부로부터 세례와 견진을 받고 회장직을 수행하며 김 신부를 사제 의 길로 인도했다. 당시 모방 신부는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조선인 신부를 찾고 있었다. 첫째로 때 묻지 않은 소년이고, 둘째로 천주교 집안이며, 셋째로 깊은 신앙심으로 본인과 그 가족 이 사제성소를 희망하고, 넷째로 건강하고 근면한 이를 찾던 모방 신부의 눈에 증조부에서부터 내려 오는 신앙을 물려받은 김 신부가 띄었다. 김제준은 모방 신부의 어린 김 신부를 사제로 키우기 위해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자는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후에 김제준은 김 신부가 유학을 간 사실이 드러 나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는 "서양인을 데려온 것과 자식을 외국에 보낸 것은 것은 모두 천주 를 공격해 받들려는 까닭"이라고 고백, 사제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1839년 서소문 밖 에서 순교했다. 김 신부가 선발될 당시 최양업 신부는 이미 4개월여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자녀를 성소의 길로 보내 는 김 신부와 최 신부의 가정은 어쩔지 닮았다. 최 신부의 가정 역시 대대로 신앙을 물려받은 집안 이었다. 특히 회장으로서 교우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던 부친 최경환의 신앙은 최 신부에 큰 영향을 미쳐 훗날 최 신부는 "부친은 언제나 종교와 신심 이외의 것은 말하지 않았다."며 "부친의 말에는 힘 이 있고 설복시키는 능력이 있어 모든 이에게 천주의 사랑을 심어줬다."고 회고했다. 모방 신부가 비밀리에 신학생을 선발하고 있을 때 최 신부를 추천하는 이가 있어 최경환을 찾았는데 최경환은 "이것은 저희 뜻이 아니라 천주의 부르심이요 소명"이라며 "집안에 이러한 기쁨이 찾아올 줄은 참으로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최경환과 아내 이성례는 최 신부가 나라 밖으로 간 것이 알려져 더욱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 옥중 순교했다. 역시 아직 최 신부가 마카오에서 유학 중이던 1839년의 일이다.	
<가톨릭 신문 2013.04.21. 1면에서 발췌>	

♥ 주일전례

♣ 제1 독서 : 사도행전 4,8-12

♣ 화답송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제2 독서 : 요한 1서 3,1-2

♣ 복음 환호성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 요한 10,11-18

♣ 전례봉사

다음주 교중 미사 (05월 02일)			다음주 개척 미사 (05월 02일)		
매설	1독서	2독서	매설	1독서	2독서
이미경 (루시아)	김차숙 (데레사)	강월숙 (가브리엘라)	김인숙 (아가다)		
봉헌	복사				
보편지향기도			안내		

♣ 평일 전례 봉사자

구분	04월 26일(월)	04월 27일(화)	04월 28일(수)	04월 29일(목)	04월 30일(금)	05월 01일(토)
매설	미사없음	정재규(사도요한)	하복순(골롬바)	백희선(크리스티나)	이예선(마리아)	학생미사
독서						
복사						

♣ 죽일을 죽아합니다.

4월25일(주일)	로베르토, 마르코, 멜라, 스테파노, 아니아노, 에로미노, 에보디오, 필로, 헤르모제네, 헤리발도
4월26일(월)	루치디오, 리키리오, 마르첼리노, 바실레오, 베드로, 스테파노, 안토니노, 치리노, 클라렌시오, 클라우디오
4월27일(화)	리베랄리스, 모그홀드, 스테파노, 아델레오, 아시코, 안티모, 요한, 지타, 카스토르, 데오도로, 테오필로
4월28일(수)	디디모, 마르코, 메난데르, 발레리아, 베드로 사넬, 비탈리스, 아가피토, 에우세비오, 치릴로, 크로난, 팜필로
4월29일(목)	가타리나, 다니엘, 로베르토, 바울리노, 발프리도, 세베로, 아가피토, 아바, 안토니아, 에밀리아노, 티키고, 후고
4월30일(금)	갈파르도, 데시테라토, 도나토, 라우렌시오, 루도비코, 마리아노, 막시모, 비오 5세, 소피아, 야고보, 제니스토
5월01일(토)	그라타, 마르쿨프, 베르타, 브리옥, 아마토르, 아사포, 안데올로, 에레미아, 이시도라, 케보카, 테오다르토

♥ 주간공지 ♥

<본당 코로나19 방역>

♣ 부활 제4주간(04월 25일 ~ 05월 01일)
소독 청소 : 구외반, 모니카회, 제대회

♣ 오늘은 성소 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오늘 가정성화와 생명수호 미사후
장기기증 신청을 받습니다.

♣ 성시간
일시 : 04월 29일(목) 저녁 미사후

♣ 예비신자 입교식 및 환영식
일시 : 05월 02일(주일) 교중 미사중

♣ 05월 사목협의회
일시 : 05월 02일(주일) 교중 미사후
주요 안건 : 성모의 밤 행사 관련건

▣ 신심단체 ▣

♣ 제 신심단체장 분들은 본당 신부님께
면담 신청을 하시고 각종 현황을 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 05월 31일(월)까지
0. 신심단체 : 연령회, 성소후원회
군중후원회, 빨마회, 성모회, 베드로회
제대회, 빈첸시오회, 자모회, 모니카회
교정사목회, 기타 단체 등

▣ 구역부 ▣

♣ 이문섭(빅토리오) 형제께서 본당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중 미사후 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본당 성전 음향기기 교체 찬조>
권택성(스테파노) 20만원
감사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미사를 하시는 교우분들은
교무금 및 교구사업모금 납부를 위한
아래 본당 계좌를 참조바랍니다.

<본당 계좌>

- 교무금, 주일헌금, 축일헌금 계좌
은행 : 경남은행
계좌번호 : 510-07-0143575
- 교구사업모금 계좌
은행 : 경남은행
계좌번호 : 510-21-0545228
- 예금주 : (재) 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
- 각 신심단체 후원회비는 본당계좌로
입금시키면 안됩니다. (사무실에 직접)
- 교무금, 주일헌금, 축일헌금, 은인보조
및 기타 사업모금 등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